

<비상시국 수습을 위한 ‘(가칭)정치지도자회의’를 제안합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시민들은 애국심으로 단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에서는 세 딸을 기르는 한 어머니가,  
대구에서는 모의고사를 앞둔 여고생이,  
정치인들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의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최순실의 꿈”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위해 광장에 나오셨다고 했고,  
올해 2학년인 대구의 여고생은 가족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그들의 더 나은 내일과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은 애국심 가득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진심 어린 응답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아직도 자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난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움직이면 상황만 더 악화될 뿐입니다.

이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비상시국 수습을 위해 한뜻으로 나서야 합니다.

저만치 앞서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초유의 국난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야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 비상시국 수습을 위한 ‘(가칭)정치지도자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들이 함께 국정수습의 과정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누가 중심이랄 것도 없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모여 붕괴된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을 찾자고 제안합니다.

저부터 만나러 가겠습니다.

정당과 이념을 넘어 누구든 만나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비상시국 수습을 위한 ‘(가칭)정치지도자회의’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습책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의 개별적인 힘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각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회의에서 국정수습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부터 마음을 열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8일 안 철 수

< 안철수의원 페이스북 글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만났다.  
김병준 총리지명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추천 총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비춰볼 때 여전히 미흡하다.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사표시다.  
표현이 애매하고 분명한 것이 없다.  
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보를 볼 때 시간별기용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는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물러나라는 것이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치는 총리가, 외교는 대통령이 맡는 방안은 잘못된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완전 권한위임 약속 이전에 총리를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약속하고, 선임되는 대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 애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밝힌다.